**일본선교소식(요코하마) 2023.5**

 **정지문・김은옥선교사 기도편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동역자님들! 그동안도 평안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변함없는 기도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안에서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 달전에 수양관의 한 나무아래서 산들 산들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잎들 그리고 움직이는 개미나 벌레들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개미와 벌레들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고 나뭇잎들도 미풍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작은 나무아래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만물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운행되고 있음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창1:2에서 아무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수면위에 운행하셨다고 하셨는 데 오늘도 성령님이 운행하시기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응답의 감격**

천국에 가고 싶다는 일본 부인의 말을 듣고 또 그가 배우고 싶다는 영어를 나도 잘 가르쳐주고 싶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제가 영어에 정말 눈이 열리는 은혜를 입기도 한 일년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준비하여 영어 클래스에 갔습니다. 영어공부 후에 창세기부터 쭉 바이블스토리를 해 오면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할 순서인데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을 찿아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너무도 나눠주고 싶어서 “오늘은 좀 뛰어넘어서 따끈따끈한 말씀을 나누고 싶다”고 하고 나누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녀를 찿아주신 그 주님! 저의 마음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내 주님! 저는 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영어 공부도 엄청 재미있게 하고 말씀도 따끈한 거 잘 나누고 기도로 잘 마치고 맛있는 과일도 풍성히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너무 일본사람이 되어서 오늘은 꼭 그들에게 예수님 영접할 찬스를 주어야 했는데 하는 맘이 밀려왔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이미 집에 다 가버렸지요. 그런데 제가 친구 만나려고 늘 가는 밤무대가 있는 데 ㅎㅎ ( 동네 목욕탕), 갔더니 딱 그 시간에 아침에 영어교실에 왔던 요시코상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작정하신 날인데 종이 놓치면 안되지요! 한 참을 물에서 복음을 다시 나누었습니다. 요시코상이 집에 가서 꼭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답이 왔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본래 지으신 대로 살고 싶고, 천국도 가고싶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아멘!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너무 기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김은옥선교사씀)

**즐거움이 가득했던 요리교실 **

이 번 주간 한국에서 미국에서 너무나 귀한 분들이 오셔서 요리교실을 통해 일본영혼들을 온맘다해 섬겨주셨습니다. 배추 겉쩔이와 해물파전을 함께 만들면서 주님께서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만남의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웃집 부인과 그 친구들인 간호원들도 참석하셨는 데 한 분은 밤새 야근을 하고 잠도 안자고 참석하셨습니다. 그 분은 2주 후에 샌프란시스코에 갈 예정이었는 데 그 곳에서 다시 미국에서 오신 오엠에프 이사님 부부를 만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찬양, 헌신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요리교실을 통해 새로운 만남의 물꼬를 틀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제목**

1.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영어로 재미있게 노는 시간을 위해 6월 둘째 주까지일꾼을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하여 귀한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셔서 영어캠프를 통해 가족전도와 커뮤니티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2.아내의 성령님과 함께 하는 즐거운 영어교실를 통해 요시코상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요시코상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3. 미노루상이 매주 예배에 오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미노루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례를 받도록

4. 땀을 너무나 많이 흘려 하루에도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어야 하고 스테미나가 부족한 아내가 치료받아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입도록

5. 지난 5년 8개월 이상 현재의 예배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놀라운 방법으로 도우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필요를 채워주시도록